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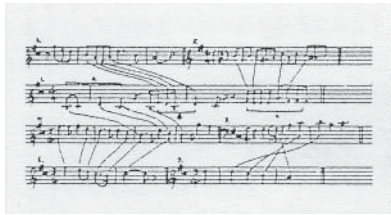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제6번 <비창>

나 운 영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4·5·6번은 그의 최대 걸작으로 손꼽히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제6번 비창은 그의 대표작이다. 일반적으로 음악 애호가들이 손꼽는 4대 교향곡이라면 베토벤의 "운명", 슈베르트의 "미완성", 드보르자크의 "신세계", 차이콥스키의 "비창"을 말하는데 베토벤은 고전파에 속하고, 슈베르트는 전기 낭만파에 속하며, 드보르자크와 차이콥스키는 후기 낭만파에 속하는데 "신세계"에 비하면 "비창"은 매우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작품으로써 그야말로 '교향곡의 대명사'라고 말해도 좋을 줄로 생각된다.

'비창'이란 표제로 말미암아 더욱 유명해진 이 작품은 하이든 이래의 전통인 <빠른 제1악장 - 느린 제2악장 - 겹세도막 형식에 의한 제3악장(미뉴에트 또는 스케르쑈) - 주로 론도형식이나 소나타형식에 의한 빠른 제4악장>의 순서가 뒤바뀌어 매우 느린 악장으로 끝나기 때문에 더욱 비통한 느낌을 준다.

이 곡의 연주법을 비교 연구하기에 앞서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Theme분석>이다.



- 악보에 있어서
- 1은 제1악장의 제1주제이고,
- 2는 제1악장의 제2주제이고,
- 3은 제2악장의 a이고,
- 4는 제2악장의 c이고,
- 5는 제3악장의 a이고,
- 6은 제4악장의 a이고,
- 7은 제4악장의 b인데,

이 모두가 제1악장의 제1주제에 있어서의 a·b·c 요소에서 파생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의 작곡 기법의 묘를 새삼 깨닫게 된다.

그러면 위의 두 가지 예비지식을 가지고 음악을 감상하되 될 수 있는 대로 관현악 총보를 준비하여, 악곡 형식과 화성을 분석한 다음 악보를 보면서 세밀하게 듣는 습관을 기르기 바란다.

Schwann Catalogue(1988여름호)를 보면 37종의 레코드가 소개되어 있는데 지휘자는 다음과 같다.

- 아바도(3), 아브라버넬, 아쉬케나지, 번스타인, 첼리비다케, 도흐나니, 페도세예프, 줄리니(2), 골쉬만, 하이팅크, 안손스, 카라얀(3), 클렘페러, 크립스, 레바인, 마젤, 마르티농, 미트로폴로스, 므라빈스키, 뮌쉬, 무티, 오먼디(3), 오자와, 파이타, 라이너(3), 잔덜링, 솔티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레코드는 38종이며 위의 것과 중복되지 않은 지휘자는 다음과 같다.

- 뵘, 볼트, 도라티, 프리차이, 푸르트벵글러, 게하르트, 하이팅크, 캠펠, 쿠벨릭, 라인스도르프, 마타치치, 몽퇴, 레추하, 로진스키, 로스트로포비치, 스토코프스키, 스베틀라노프, 토스카니니

수많은 레코드를 비교해서 들어보면 같은 연주도 없고 또한 그다지 다른 연주도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 흥미롭다.

연주란 지휘자의 해석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는 법인데, 즉 속도, 강약, 발상, 음색, 귀절법(Phrasing), 분절

법(Articulation) 등의 차이에 따라 맛과 멋이 달라지는 법이지만 그중에서 결정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속도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 이 곡의 연주시간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지휘자	연주시간				비고
	1악장	2악장	3악장	4악장	
미트로폴로스	15:32	7:32	8:34	8:24	
솔티	17:30	7:45	8:05	9:13	'76 녹음
토스카니니	16:20	7:25	8:46	9:07	'47 녹음
스토코프스키	19:09	8:00	9:03	10:22	'74 녹음
뵘	19:06	9:02	9:16	10:02	'78 녹음
번스타인	18:50	7:05	8:50	11:35	
페도세에프	19:03	7:44	8:31	10:51	'81 녹음
로스트로포비치	18:48	7:41	8:56	9:32	'76 녹음
므라빈스키	17:27	8:00	8:17	9:39	'60 녹음
줄리니	18:41	8:08	9:25	10:11	'80 녹음
카라얀	18:22	9:01	8:24	9:50	'76 녹음
아바도	17:47	8:01	9:08	9:42	'73 녹음
오먼디	18:00	8:06	9:25	10:41	'68 녹음
프리차이	17:15	7:55	7:45	9:10	'53 녹음
푸르트벵글러	19:14	9:17	9:16	9:13	'51 녹음
아쉬케나지	19:07	5:57	8:23	11:12	'80 녹음
레추하	17:47	8:00	8:55	9:07	
게하르트	17:47	8:00	8:56	9:08	
마르티농	18:19	7:49	8:37	9:45	'58 녹음
호렌스타인	19:00	7:39	9:22	10:20	'76 녹음
마타치치	18:15	7:25	8:40	9:35	'68 녹음

첫째로 제1악장의 연주시간을 보면

- (1) 15분대에 속하는 지휘자는 미트로폴로스 : 1명
- (2) 16분대에 속하는 지휘자는 토스카니니 : 1명
- (3) 17분대에 속하는 지휘자는 프리차이, 므라빈스키, 솔티, 아바도, 레추하, 게하르트 : 6명
- (4) 18분대에 속하는 지휘자는 오먼디, 카라얀, 줄리니, 로스트로포비치, 번스타인, 마타치치 : 6명
- (5) 19분대에 속하는 지휘자는 푸르트벵글러, 뵘, 아쉬케나지, 호렌스타인 : 4명
- (6) 가장 빠른 미트로폴로스와 가장 느린 푸르트벵글러의 차이는 3:44이다.

둘째로 제2악장의 연주시간을 보면

- (1) 7분대에 속하는 지휘자는 번스타인, 토스카니니, 미트로폴로스, 로스트로포비치, 페도세에프, 솔티, 프리차이, 호렌스타인, 마타치치 : 9명
- (2) 8분대에 속하는 지휘자는 스토코프스키, 므라빈스키, 레추하, 게하르트, 아바도, 오먼디, 줄리니 : 7명
- (3) 가장 빠른 아쉬케나지와 가장 느린 푸르트벵글러의 차이는 3:20이다.

셋째로 제3악장의 연주시간을 보면

- (1) 7분대에 속하는 지휘자는 프리차이 : 1명
- (2) 8분대에 속하는 지휘자는 솔티, 므라빈스키, 아쉬케나지, 카라얀, 페도세에프, 미트로폴로스, 토스카니니, 레추하, 로스트로포비치, 게하르트, 마타치치 : 11명
- (3) 9분대에 속하는 지휘자는 스토코프스키, 아바도, 뵘, 푸르트벵글러, 줄리니, 오먼디, 호렌스타인 : 7명
- (4) 가장 빠른 프리차이와 가장 느린 줄리니, 오먼디의 차이는 1:40이다.

넷째로 제4악장의 연주시간을 보면

- (1) 8분대에 속하는 지휘자는 미트로폴로스 : 1명

- (2) 9분대에 속하는 지휘자는 토스카니니, 레추하, 게하르트, 프리차이, 솔티, 푸르트벵글러, 로스트로포비치, 므라빈스키, 아바도, 카라얀, 마타치치 : 10명
- (3) 10분대에 속하는 지휘자는 뵘, 줄리니, 스토코프스키, 오먼디, 페도세에프, 호렌스타인 : 6명
- (4) 가장 빠른 미트로폴로스와 가장 느린 번스타인의 차이는 3:11이다.

다섯째로 제1.2.3.4악장의 연주시간 순위를 검토해 보면

- (1) 가장 빠르게 연주한 지휘자는 미트로폴로스 - 토스카니니 - 프리차이 - 솔티 - 므라빈스키의 순이고, 가장 느리게 연주한 지휘자는 푸르트벵글러 - 뵘 - 스토코프스키 - 줄리니 - 오먼디 - 페도세에프, 번스타인의 순이다.
- (2) 빠른 제1악장을 가장 느리게 연주한 푸르트벵글러와 느린 제4악장을 가장 빠르게 연주한 미트로폴로스는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
- (3) 빠른 제1악장을 가장 빠르게 연주한 미트로폴로스와 느린 제4악장을 가장 느리게 연주한 아쉬케나지는 타당성이 인정된다.
- (4) 빠른 제1악장을 푸르트벵글러 다음으로 느리게 연주한 스토코프스키와 느린 제4악장을 미트로폴로스 다음으로 빠르게 연주한 토스카니니도 결코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 (5) 전 4악장 중 가장 빠른 제3악장 (Allegro molto vivace, J=152)을 가장 느리게 연주한 오먼디, 줄리니, 뵘, 푸르트벵글러, 아바도, 스토코프스키는 결과적으로 제 1.2.4악장과 속도상 균형이 맞지 않는다.
- (6) 제3악장을 비교적 느리게 연주한 게하르트, 레추하가 반대로 제4악장을 가장 빠르게 연주한 것은 근본적으로 작곡자의 의도를 무시한 — 무식한 해석이라고 단정해도 절대로 지나친 말이 아니리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제4악장이 느리면 느릴수록 비통한 느낌을 더해 주기 때문이다.

끝으로 18명의 지휘자 중 5명의 연주를 좀더 세밀하게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제1악장	제2악장	제3악장	제4악장
스토코프스키	너무 느리다 제2주제를 너무 부각시켰다.	rubato가 좀 심하다.	조금 느리다 March를 강조했다.	
푸르트벵글러 (1886~1954)	너무 느리다. 발전부에서 재현부 초까지가 매우 박력이 있다.	너무 느리다. 그러나 매우 우아하다.	너무 느리긴 하나 Coda 직전이 매우 박력이 있다.	극적이다.
므라빈스키 (1903~1988)	감정이 억제된 연주이다.		너무 빠르다. 경음악이다.	빠르다. 극적표현이 미흡하다.
카라얀 (1908~)		조금 느리다. 담담한 연주이다.	빠르다. 그러나 박력이 있다.	조금 빠르다. 그러나 극적이다.
페도세에프 (1932~)	조금 느리다. 별로 극적이 아니다.	조금 경쾌하다.	빠르다. 조금 경박하다.	알팍한 연주이다.

- 1. 위의 5명의 지휘자의 연주를 내 나름대로 평가한다면 스토코프스키 - 푸르트벵글러 - 카라얀 - 므라빈스키 - 페도세에프의 순이 된다.
- 2. 카라얀은 이 곡을 7회 레코드 녹음했는데 연주시간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회수	연도	제1악장	제2악장	제3악장	제4악장
----	----	------	------	------	------

1	'39	?	?	?	?
2	'48	18:52	9:02	8:11	8:58
3	'55	18:52	8:14	9:02	9:21
4	'64	18:45	7:53	8:35	9:55
5	'71	18:02	9:03	8:11	10:13
6	'76	18:22	9:01	8:24	9:50
7	'84	19:19	8:47	8:29	9:43

3. 푸르트벵글러는 이 곡을 2회 밖에 레코드 녹음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 수 없다.

4. 이 곡의 레코드로는 이미 정평이 나 있는 멩겔베르크, 아벳트로트의 연주는 물론이고 이 밖에도 콘드라신, 마르케비치, 메타, 로제스트벤스키의 연주도 꼭 들어보고 싶다.

